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5.7.1.(화) 09:00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본격 돌입!

- 상반기 참여대학 14개교 자문(컨설팅) 완료,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착수
-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 7.1(화) ~ 7.21(월) 진행
-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대학 현장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를 7.1(화)부터 오는 7.2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5~'33, 9년간 총 9,790억 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월 석사80/박사110만 원)하고, **대학(산단) 차원 학생인건비 종합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월별 지급 안정성 강화, 전반적 지급 수준 개선 등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고도화**한다. **'25년 예산은 총 6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25.상반기 경과 >

'25년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2.11~4.18)를 거쳐 동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4.25)하였다. 또한 참여계획서·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자문**(4.28~현재)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하였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려금 지급·관리 시 대학(산단)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체 29개 참여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운영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 친화적인 형태로 사업 운영 원칙을 안내하고, **▲사업 운영 방침(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자주하는 질문집(FAQ) 배포** 등을 통해 현장의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 '25.하반기 계획 >

'25년 하반기의 경우, 우선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6.20(금)부터 7.21(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7.1(화)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1) 요건검토, 2)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되며,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자문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25년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형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며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4-202-4830)
		담당자	사 무 관	하지영 (044-202-4835)
			사 무 관	이상민 (044-202-4839)
관련기관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책임자	팀 장	문기호 (042-869-6451)
		담당자	선임연구원	남경민 (042-869-6452)
			선임연구원	송재문 (042-869-6456)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국형 Stipend

한국형 Stipend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 등 모든 종류의 연구생활장려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R&D 지원제도

달라지는 모습

도입 前

- 정부R&D 학생인건비
- 그 외 산단 학생지원금 (학술용역, 민간R&D 등)
- 연구책임자 계정
- 이공계 대학원생

도입 後

- 정부R&D 학생인건비
- 정부 지원금 + 참여대학 자체기여 (간접비 등)
- 그 외 산단 학생지원금 (학술용역, 민간R&D 등)
- 연구책임자 계정
- 대학계정*
- 이공계 대학원생

최저수준 미만 학생 약 20%	연구 참여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저지급액 보장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연구책임자가 학생지원 책임 전담	연구책임자와 정부, 대학이 함께 분담
학생연구자 정보 관리체계 부재	대학 단위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구이력, 지원현황 등)

* 대학계정이란 대학(산단)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생활장려금 관리·지급 계정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생활장려금을 종합적으로 파악, 학생연구자 최저수준 보장과 함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운영하는 통합 플랫폼

기대효과

대학원생

연구 참여 시 최저지급액을 보장받음으로써 연구·학업 몰입 강화

연구책임자

소속학생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고, 도전적 연구활동 강화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 종합 지원체계 도입을 통해 우수 교원·대학원생 유치 및 연구 경쟁력 향상

붙임2 '25년도 상반기 참여대학 명단 (29개교)

연번	대학명	연번	대학명
1	가천대학교	16	서울시립대학교
2	가톨릭대학교	17	성균관대학교
3	강원대학교	18	성신여자대학교
4	건국대학교	19	세종대학교
5	경상국립대학교	20	순천향대학교
6	고려대학교	21	연세대학교
7	광운대학교	22	이화여자대학교
8	국립공주대학교	23	인하대학교
9	국립창원대학교	24	전남대학교
10	국립한밭대학교	25	제주대학교
11	대구가톨릭대학교	26	충남대학교
12	덕성여자대학교	27	충북대학교
13	부산대학교	28	포항공과대학교
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	한양대학교
15	서울대학교		